



비우고 감사하고 기다리라

방 송 인 김 혜 영

1987년 ~ 현재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
2010년 ~ 현재 KBS 아침마당 출연
2014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2009년 제1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TV·라디오
부문 라디오 진행자상
2007년 MBC라디오 골든마우스상 수상

198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 같은 모습으로
싱글벙글쇼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혜영 씨를 만났다.

얼마 전 다리를 다쳤다는 그녀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괜찮습니다.
다쳐서 얻은 것도 많았거든요.
깁스한 채로 방송을 했더니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해주셨고,
남편도 말을 잘 듣더라고요”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딱 싱글벙글쇼 속의 ‘김혜영’이었다.

**Q.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요?
위원회에 대한 평소 이미지가 궁금합니다.**

A.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보면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29년 동안 싱글벙글쇼를 진행해오셨는데,
오랜 기간 청취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저는 욕심이 없어요. 오늘 방송을 잘 끝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라디오국에서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

아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했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출산한 지 보름 만에 방송에 복귀하고 신혼여행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 29년이 흘러가버렸네요.

**Q. 대중의 인기와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인으로서 욕심이 없다는 점이 놀라워요.**

A.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성, 인기와 같은 것들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아는 것 같아요. 매일 라디오 방송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과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재밌고 즐거워야 하는 성격인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즐거워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Q. 라디오를 처음 시작한 1987년과 2016년 현재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환경의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청취자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엽서와 편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죠. 사과 상자로 한 박스씩 들어오는 사연을 읽는 게 큰 일이었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이 오고 가요. 하나의 예로 '왜 내 사연을 읽어주지 않냐'며 독촉하는 청취자도 있어요. 그러면 또 웃으면서 그 사연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변화를 시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천 단위로 사연을 보내는 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두 시간 동안 8 천통 정도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러면 방송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시간 내내 청취자와 호흡하며 방송을 채워나갑니다.

Q. 청취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만큼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A. 전국의 청취자 분들이 감자, 고구마, 오징어, 고추 등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맛있는 깻잎무침을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라디오국 냉장고에 있는 그 깻잎무침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져다 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생방송 내내 '김혜영은 깻잎무침 도둑'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Q. 생방송 현장은 언제나 긴장감이 맴돌 것 같아요. 요즘처럼 다시 듣기가 일반화되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텐데, 혹시 비방 목적의 사연이나 악성 댓글로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는지요?

A. 없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정말 따스해요. 제가 얼마 전 방송 중에 실수로 올림픽을 '올림픽'이라고 발음했어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누가 땀쥘까?' 하면서 웃음으로 감싸주셨어요. 청취자 식구들은 저의 삶과 환경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과 달리 목소리만으로 소통하는 라디오에는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이 정으로 채워집니다.

Q.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공동 진행자 강석 씨와의 갈등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30년 동안 함께 방송을 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사실 강석 씨는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웃음). 싸워서 등지고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제가 강석 씨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매일 얼굴 보며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싸움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 사람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비결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죠. 진리는 가장 평범해요. 모두들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할 뿐입니다.

Q. 방송일로 바쁜 엄마로서 가족과 갈등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A. 딸이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작은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작은 딸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큰 딸이 동생을 미워했는데, 큰 딸이 유학을 가면서 사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큰 딸의 그림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온통 동생 얘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작은 딸에게 주면서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 얘기해줬어요. 그 뒤로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각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 또는 형 이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도, 양보하라는 것도 모두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Q. 방송인, 아내, 엄마 등 많은 역할을 해내고 계실 텐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A.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해요. 딸이 초등학생 때, 아침에 너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줘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길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침에 딸을 깨우지 않을 계획이니 딸이 지각하면 호되게 혼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정말로 안 깨웠어요. 그 바람에 딸은 지각을 했고, 선생님께 크게 혼난 뒤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두 딸에게 "김혜영의 딸로 자라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은 덕분에 딸들과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제 삶의 큰 행복이에요.

진행 양재규(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염아영(홍보팀 직원)

